

## 22. 20C 전반기의 동아시아 ②

### 군벌시대와 국 · 공합작

---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2020s)  
독습용 보조교재 & 과제

## 0. 시대연표(21회차와 동일)

	한국	한국	일본
1900	청 (淸)	대한제국	메이지 (明治) 시대
1910			다이쇼 (大正) 시대
1920	민국 (民國) 시대	일제 강점기	쇼와 (昭和) 시대
1930			
1940			

\*일본 안은 발생일(月)

1900: 의화단 사건, 1901: 관서선정(1), 1902: 영일통상(1)

1904: 러일전쟁 발발(2)

1905: 가쓰라-타프트 밀약(7), 중국통상의 성립과 삼민주의 제창(8), 요코하마 조약(9), 히비야폭동(9), 을사조약(11), 청조의 입헌 제 조사단 파견(12), 1906: 남만주철도주식회사 설립(11)

1908: 청조의 「중정헌법대강」 발표(8), 선통제 즉위와 서태후 사망(11)

1910: 대역사건(5월), 한일합병(8), 1911: 무창봉기→신해혁명 시작(10), 중화민국 임정 수립과 쑨문의 임시중립 취임(12), 1912: 선통제 퇴위와 청조멸망(2), 원세개 제2차 임시중립 취임(3), 국민당 창당(8), 다이쇼정변과 제1차 호헌운동(12)

1913: 제2혁명 실패와 쑨문의 일본 망명(7-8), 1914: 제1차 세계대전 발발(7)

1915: 일본의 대종21개조 요구(1), 「신정년」 창간(9)과 신문화운동, 원세개의 제제운동, 1916: 원세개 병사와 군벌시대 개막(6)

1918: 발소들(7), 시베리아 출병(8), 제1차 세계대전 종결(11), 1919: 파리 강화회의의 시작(1), 3·1운동(3), 5.4운동(5), 중화혁명당→중국국민당(10)

1920: 안·진전쟁(7), 1921: 중국공산당 결성(7), 워싱턴회의(11), 1922: 제1차 직·봉전쟁(4), 일본 공산당 결성(7)

1923: 쑨문-요세선언(1), 관동대지진(9), 1924: 국민당 개조와 제1차 국공합작(1), 제2차 호헌운동(1), 황포군관학교 설립(6), 제2차 직·봉전쟁(9)

1925: 쑨문 사망(3), 5·30사건(5), 보통선거법·치안유지법 제정(5), 왕정위-장개석 연합체제와 국민혁명군 편성(8), 1926: 중산항 사건과 왕-장 연합체제 붕괴(3), 북벌 시작(7), 1927: 4·12반공정변(4) 국공합작 결렬(7), 남창폭동(8)

1928: 장장립 독살(6), 북벌 완료와 군벌시대 종식(12), 1929: 세계 대공황 발생(10)

1930: 현면해군군주회의(1), 중원대전(5-10), 국민당의 공산당포위공격(12 - 1934), 1931: 장개석의 추적취임(5), 만주사변(9), 공산당 임시중앙정부 성립(11), 1932: 상해사변(1), 열강단 사건(2), 만주국 건국(3), 5·15사건(5)

1933: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2), 당고 정전협정(5), 1934: 「장정」과 보좌들의 공산당 장악(10 - 1935)

1935: 국제당정문들(8), 12·9학살(12), 1936: 2·26사건(2), 서안사건(12), 1937: 중일전쟁 발발(7), 제2차 국공합작(9), 국민정부의 중경 천도(11), 일본군의 남경점령과 대학살(12)

1938: 일본의 중국 국민정부 무시선언(1), 일본의 국가총동원법 공포(4), 돌아선집서 성명(11)

1940: 왕정위 남경괴뢰정부 수립(3), 삼국통상(9), 1941: 환남사변(1), 미국내 일본자산몰수와 석유수출금지(7), 대동아공영권 구상(7), 트로츠키 내각성립(10), 태평양전쟁 발발(12), 1942: 국민정부의 국가총동원법 공포(3), 미드웨이 해전(6)

1943: 과달카날 철수(12), 1944: 마리아나 해전(6), 미군의 사이판·오키나와 점령(7)

1945: 연합군의 오키나와 점령(7), 원폭투하(8), 소련합전(8), 일본패망(8)

## 1. 군벌시대(軍閥時代)

### • 중앙과 지방의 군벌들

: 원세개 사후 중앙 북양군벌의 분열...직예파(直隸派) · 안휘파(安徽派)

cf. 직예파 주요 군벌...풍국장(馮國璋), 조곤(曹錕), 오패부(吳佩孚) 등

cf. 안휘파 주요 군벌...단기서(段祺瑞)

→중국의 정통지배자로서의 지위, 차관 및 조세수입이 보장되는 북경정권 쟁탈전

: 5·4운동 이후 갈등 격화

ex. 제1차 안·직 전쟁(1920/07 안휘파vs직예파+봉천파), 제1차 직·봉 전쟁(1922/04 봉천파+안휘파+손문세력vs직예파), 제2차 직·봉 전쟁(1924/09 제1차와 동일)

: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혁명군의 「북벌」(北伐) 성공→군벌시대 종식

: 지방군벌의 할거

ex. 서남(西南)군벌, 봉천군벌 장작림(張作霖), 산서군벌 염석산(閻錫山)

### • 군벌의 통치와 그 평가

: 재원의 현지 조달(=수탈)

→토지세 등 온갖 명목으로 조세 수취

## 1. 군벌시대(軍閥時代)

### • 군벌의 통치와 그 평가 (계속)

- 아편의 독점 경영, 저질화폐와 공채의 남발
- 민중과 중국경제 발전에 막대한 피해
- : 군벌지배의 매국적 성격...일본 및 영미, 소련의 지원
- : 내정 면에서 대민수탈↑, 통일된 경제발전X, 대외적으로 열강에 대한 종속↑
- 민국 성립 이래 최대의 암흑기

### • 反군벌운동과 군벌시대의 종식

- : 「연성자치운동」의 등장과 실패(1920년대 전반)
- : 손문의 군정부 수립 시도와 「중국국민당」 창당(1919)
- : 소련의 지도를 받은 국민당 개조와 제1차 국·공 합작(1924/01)
- 면모 일신. 강화된 조직력으로 反제국주의·反군벌 국민혁명운동 전개
- 여론의 높은 지지
- 북중국의 군벌과의 담판을 통한 군벌지배 종식 시도
- 손문의 사망(1925/03)으로 실현X
- 후임 장개석에 의한 무력 북벌(1926~8)로 실현

## 2. 제1차 국·공 합작과 국민혁명

### · 제1차 국·공 합작(國共合作)

: 손문의 새로운 혁명방법 모색과 소련의 접근(1923)

→소련의 사회경제 정책과 대중조직 전술 수용

→소련이 국민당에 군사·정치 고문 파견, 재정 지원, 군사학교 건설 지원

→공산당원의 국민당 입당과 국민당의 조직 개편

→공산당이 국민당 내에서 조직기반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 확대

: 황포(黃埔)군관학교 설립(1924)이 갖는 의미

: 요약...손문의 「연소용공」(聯蘇容共) 정책과 국민당의 대중정당화, 독자적 군대의 양성(1923~4)

: 당 내부의 비판/경계

### · 「북벌」(北伐)

: 손문 사후의 국민당...당정을 장악한 왕정위(汪精衛)와 군대를 장악한 장개석의 연합지도체제

→광둥 국민정부 수립, 「국민혁명군」 발족

: 연합지도체제의 붕괴와 장개석의 실권장악→북벌(1926/07)

## 2. 제1차 국·공 합작과 국민혁명

### • 「북벌」 (계속)

: 북벌은 군벌과의 전쟁과 타협이란 두 방식으로 수행됨

→상대 군벌 대부분은 타협을 선택(국민당 편입)

→순탄한 북벌의 진행 but 국민정부의 혁명성·민주성은 퇴색

: 당내 분열의 고조

→당내 反장개석 세력의 이탈과 장개석의 진압, 남경 국민정부 수립(1927/04)

→점령지에서의 대중운동(토지균등분배 주장) 증가와 당내 군벌세력의 반발

→제1차 국·공 합작의 결렬(1927/07)

: 장개석의 당내 분열 수습과 북벌 재개

→장작림 폭살 사건과 국민혁명군의 북경 무혈입성(1928/06)

→장학량(張學良)의 귀순과 국민당의 중국통일

: 남경 국민정부에게 남겨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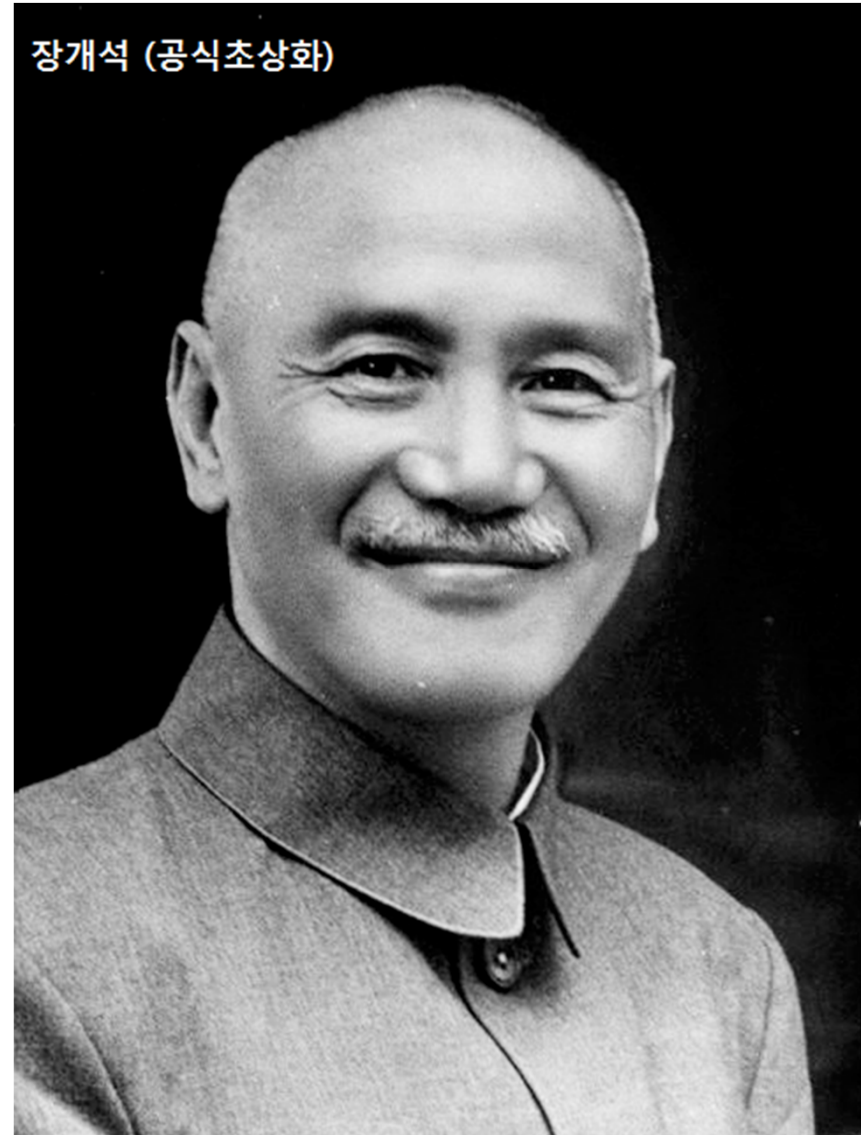
→反제국주의, 反군벌이란 사회적 목표의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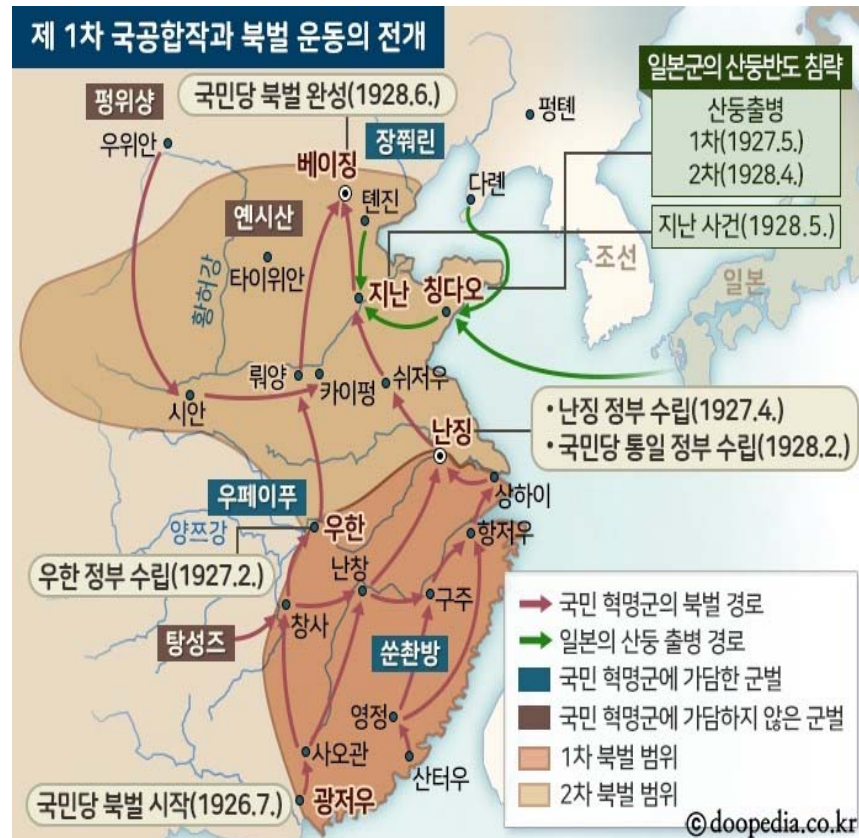
## 2. 제1차 국 · 공 합작과 국민혁명: 참고도판



장개석 (공식초상화)



## 2. 제1차 국·공 합작과 국민혁명: 참고도판



### 국공합작의 전개





### 3. 남경 국민정부 시대

- 「반장전쟁」(反蔣戰爭)의 진압과 훈정의 개시

- : 중국통일 이후에도 여전한 군벌들의 힘과 불안한 상호관계

- 안정적 중국지배를 위해서는 군벌 사이의 이해관계 조정과 이들 전체를 약화시킬 필요가 발생

- 국민혁명군의 축소와 이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

- : 군벌의 반발과 「반장전쟁」

- 장개석 직속 중앙군의 승리와 군벌에 대한 군사적 우위 확립

- : 훈정의 실시와 당·정부 조직의 재편(→장개석 중심)

-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의 공포(1931/05)

- 장개석의 주석 취임(군사·재정을 장악한 최고실력자)

- : 단기적 측면에서의 평가

- 체제 안정으로 국민당의 중국지배 강화

- : 장기적 측면에서의 평가

- 민주적 요소의 희생, 민심의 이반으로 국민당의 지배 약화

### 3. 남경 국민정부 시대

- 중국공산당의 성장

- : 계속되는 폭동의 실패와 지도부의 경질 ex. 남창(南昌)폭동(1927/08)

- : 농촌 근거지의 확보와 장기적 · 근본적 혁명정책들의 시행

- ex. 모택동(毛澤東)과 주덕(朱德)의 정강산(井崗山) 근거지

- 토지혁명 실시와 민심 확보

- 폭동과 총파업은 계속 실패 but 세력 근거지는 증가함

- : 서금(瑞金) 임시정부 수립(1931)과 모택동-주덕 지도체제의 등장

- : 국민당의 공산당 근거지 포위공격(1930~34)

- 공산당의 강서성→섬서성 대이동(=「장정」長征)과 모택동의 권력장악

- : 다가오는 일본군의 중국본토 침략과 장개석의 공산당 공격시도(1936)

- 여론은 항일연대를 주장한 공산당 쪽으로

- 「서안사건」(西安事件)과 제2차 국 · 공 합작

### 3. 남경 국민정부 시대: 참고도판



## 4. 제2차 국 · 공 합작과 항일전쟁

### · 일본의 중국침략과 장개석의 선택

: 「만주사변」(9 · 18사변)과 괴뢰국가 「만주국」의 수립(1931~32)

: 공산당 섬멸을 우선시하고 만주국 문제는 국제연맹에 제소한다는 선택

→휘하의 장학량 군에게 일본과의 전투회피를 지령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와 「화북 분리공작」

: 선택의 결과

→공산당의 「장정」이란 긍정적 결과

→항일을 중시하는 중국사회의 대 국민당 여론 악화라는 부정적 결과

: 공산당의 반격...내전 중지와 항일 공동전선 수립을 주장하여 국민당 압박

→여론은 공산당 쪽으로 기울었지만 장개석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음

### · 「서안사건」과 제2차 국 · 공 합작

: 장개석의 서안 방문(장학량 압박)→장학량의 장개석 구금, 석방조건으로 공산당과의 항일연대를 제안→장개석의 수용과 항일전선 구축

: 중일전쟁 발발(1937/07)과 제2차 국 · 공 합작(1937/09)

## 4. 제2차 국 · 공 합작과 항일전쟁

### · 항일전쟁의 전개

- : 일본군의 전략(단기 속전속결전) vs 국공연합군의 전략(전선확대, 장기전)
- : 정면전은 국민혁명군, 유격전은 공산군
- : 일본군의 남하와 서전 승리
- 막대한 희생을 치른 상해(上海) 점령전(1937/11)
- 일본군의 초조함과 「남경대학살」(1937/12)
- : 중경(重慶) 국민정부의 수립과 장기전 태세
- 일본은 개별 전투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장기전에 돌입하게 됨
- : 일본정부의 「동아신질서」(東亞新秩序) 선언과 국민당 분열책
- 왕정위의 중경 탈출과 남경 괴뢰정부 수립(1940/03)
- : 일본의 경제봉쇄와 무차별 폭격(1939/05~)

### · 공산군의 항전과 국 · 공 대립

- : 중일전쟁 발발 이후의 공산당→유격전으로 일본 점령지의 후방 침투
- 민심 장악, 근거지 확대
- : 일본은 모든 점령지를 지배 · 관리할 여력X

## 4. 제2차 국 · 공 합작과 항일전쟁

### · 공산군의 항전과 국 · 공 대립 (계속)

→so 국민혁명군의 패배는 공산당 근거지의 확대를 의미

: 일본군의 태도 변화...공산당 근거지에 대한 경제봉쇄, 소탕작전

ex. 「삼광」(三光)작전

: 당시 국민당 수뇌부의 내분

→反장개석 세력은 그의 권력강화 시도, 미흡한 공산당 대책을 비판

→장개석도 공산당의 세력 확대를 주시

: 결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물리적 충돌

→항일전쟁 이후 누가 중국을 지배할 것인가?

→국민당 측이 공격, 공산당 측이 피해

→but 공산당은 항일 통일전선 유지→중국사회의 호의적 여론

### ·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종전

: 전선의 확대와 영 · 미의 항의(to일본)

→일본의 독일 · 이탈리아 접근→영 · 미의 중국원조→일본의 원조 방해

→미국의 「미일통상항해조약」 파기(1939)→일본의 물자부족



## 4. 제2차 국 · 공 합작과 항일전쟁

### · 아시아-태평양 전쟁과 종전 (계속)

: 전선의 확대와 영 · 미의 항의(to일본)

→일본의 독일 · 이탈리아 접근→영 · 미의 중국원조→일본의 원조 방해

→미국의 「미일통상항해조약」 파기(1939)→일본의 물자부족

: 일본의 전략 전환...「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건설 선언

: 일본의 삼국동맹 체결과 전장의 확대

: 일본의 진주만 기습(1941/12)와 태평양 전쟁의 시작

: 국민정부의 「국가총동원법」 선포(1942/03)

→농민부담 증가

→장개석 직속군 이외의 군벌세력의 불만

: 경제적 어려움, 정부의 부패, 군대의 사기저하

→국민혁명군의 연패와 민심의 이반 cf. 공산당의 경우

: 중국에서의 일본 전력 약화와 국민혁명군 · 공산군의 공세 전환

: 일본의 무조건 항복(1945/08)과 또 다른 전쟁의 시작

## 5. 과제

### Q. 장개석의 선택에 관하여

: 본 강의에서 살펴 보았듯이, 중국국민당의 지도자 장개석은 권좌에 오른 뒤 거듭하여 양자택일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항일전쟁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공산군 섬멸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 그 대표적인 것이었지만, 그 밖에도 여론의 지지를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당내의 지지를 우선시할 것인가, 혹은 중국사회가 요구하는 반제국주의, 반군벌의 실현을 우선시할 것인가 아니면 물리력을 갖고 있는 군벌들의 지지·장악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 문제가 끊임 없이 장개석을 괴롭혔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장개석은 이상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항상 후자를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현실주의자?).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장개석과 국민당의 非현실적인 패배였다.

: 본 과제는 이런 장개석의 정치인생에서 보이는 다양한 선택들에 대한 평가다. 여러분이 만약 장개석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를 주위에 합리화할 수 있었을까? 역사 혹은 현실사회에서의 이상론과 현실론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개별 조사를 통해 장개석의 정치이력에 대해 간단히 조사한 뒤, 그의 선택에 대한 개인적 감상을 A4 1면 이내로 작성해 보시오.